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광림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www.klmc.church

복음의 불모지 N국에 믿음의 씨앗 심다

청년부 <해외선교 100교회 건축> 60번째 교회 봉헌, 61번째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7월 말 힌두국가 N국에 '거이리단티 감리교회'가 봉헌된다. 광림교회 청년부의 헌신으로 지어진 교회는 <해외 100교회 건축>비전의 60번째 열매다.

N국은 기독교 인구가 3%도 채 되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다. 많은 이들이 태어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다가 취업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번 교회 건립도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왔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는 선교사와의 인연이 계기가 되었다. 선교사는 N국의 수도를 제외한 지역에 교회가 없음을 알리며 교회 건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광림의 청년들은 현지 선교사의 요청에 따라 예배처소 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N국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 후원금은 지난 4월 <해외선교 100교회 건축>을 위한 300명의 정기후원자 모집을 통해 자원한 72명 후원자의 첫 번째 섬김이다. 코로나로 선교지에 갈 수 없지만 현지 목회자와 함께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도움 없이도 성전을 확장시켜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현재 N국에는 61번째 교회 '영생 감리교회'의 건립 준비도 완료된 상태다. 8월초 첫 삽을 뜨는 영생 감리교회는 얼마 전 청년부에서 해외 100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어느 집사님이 청장년부 시절 단기선교를 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전액을 후원했다. 61번째 교회 역시 수도에서 3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35명 정도의 성도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며 교회건축이 가장 큰 기도제목이었다고 한다. 새롭게 건립되는 두 교회는 N국 감리교단에 소속되어 관리되며 현지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역할 또한 감당할 예정이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2000년 처음 시작된 청년부 <해외 100교회 건축> 비전이 올해로 21주년을 맞았다. 비전의 최종목표인 2030년까지 100교회 건축을 위해 바삐 달려 나가야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선교지 상황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계획한 선교비전을 이루는데도 제약이 많아 여느 해 같으면 해외단기선교로 분주해야할 시기임에도 모든 사역이 중단되었다. 광림의 청년들은 포기하지 않고 악화된 선교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도울 방법을 찾았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놀랍게도 현지 목회자를 통해 60번째와 61번째 교회를 건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거이리단티감리교회 내부

김주송 목사(청년부)는 "청년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확장하는 일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선아 기자

2 광림의 강단 내어놓음과 용서
3 광림 스토리 광림샤이닝키즈
4 특집 호렙산 기도회 간증
6 하나님을 만나다 웨슬리의 발자취
7 믿음의 현장 광림남교회,서교회, 북교회
8 특집 장천의 아흔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

내어놓음과 용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요한복음 8장 7절)

본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감람 산에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여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죄악으로 곪아있는 모습, 율법의 참 정신은 알지 못하고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간음한 여인이나 그녀를 고발한 사람들이나 모두 용서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깊은 내면의 상처와 연약함을 보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군중에 쌓여 수치심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 간음한 여인과 같은 상태일지라도, 때로는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고 타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 하는 우매한 군중과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약함과 상처를 보시고 용서하시며,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고 연약한 영혼을 위로하시며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총 앞에 우리의 모든 내면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죄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알고도 죄에 중독되면 그 참혹한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죄가 주는 무서움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는 반드시 책임과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짓는 행위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죄를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든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내게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간음한 여인도 무슨 이유에서든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죄에 뒤따르는 비참한 결말을 깊이 생각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그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도 생각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간음이라는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가 우리의 인생을 곪게 만듭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죄는 언제나 상처를 동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자신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가져다줍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여인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죄에 대한 아무런 의식 없이 그 죄에 침식되어 가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며,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11절

1.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둘째,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일지라도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본문의 여인도 은밀히 죄를 짓는 현장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깊이 숨기고 있던 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떠한 연민이나 구원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죽이기 위해 많은 군중들이 에워쌌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성난 군중들의 고함소리 속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직면한 그녀,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할 만한 그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자신을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난 군중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7절). 이 말씀은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더 나아가 오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군중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11절). 헝클어진 머리, 찢겨진 옷자락,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된 여인은 이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나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때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뿐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주님 앞에 죄를 내어놓으십시오.

여인에게 죄를 묻던 군중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그 모습은 마치 나와 같지 않습니까? 여인을 정죄하는 모습이 내게는 있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음한 여인처럼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죄를 숨기기 위해 도리어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부각시키며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돌로 여인을 치려고 했던 군중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그 여인의 죄를 들춰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 빛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더욱 깊은 어둠으로 향하는 자에게는 치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궁지에 몰렸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압도하였습니다. 여인을 정죄하는 군중의 함성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 뒤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죄 지은 여인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깨끗한 사람, 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참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용서해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치유는 온전한 내어놓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즉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며 내 삶을 고백합시다. 깨끗하게 용서받고 치유되며,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2021년 2학기, 제26기 광림장학생 선발

미래 지도자를 위한 응원과 격려

2021년 2학기 제 26기 <광림장학생> 신청접수가 7월 25일 마감되고 본격적인 서류심사가 시작된다. 광림장학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장로)는 1998년부터 해마다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장학생의 종류는 <성적우수 장학생>, <감리교 미자립 목회자 자녀 장학생>이고 올해 새롭게 장학금의 범위를 넓혀 <서울 남연회 소속 비전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생>이 신설되었다. 서울 남연회 소속 목회자 자녀의 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여러 자료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선발하여 대학생 자녀 10명에게 학기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서울남연회(김정석 감독)가 감리교의 목회자 자녀들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미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취지이다.

광림교회 성적우수 장학생은 광림교회 출석가정의 대학생 자녀 중에서 1학년 1학기 이상을 마친 학생으로 지난학기 성적 평점이 B학점 이상인 학생이며 학기당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생은 자립이 어려운 상태의 목회자를 돕기 위해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믿음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 10명을 선발하여 학기당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동호 장로는 "장학생 선발은 9명의 장학위원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성적, 봉사, 가정형편 등을 엄격한 기준하에 심사하여 공평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상황등 어려움이 많지만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광림장학금은 광림의 성도들은 누구나 동참 할 수 있는 매월<1만원 장학후원금>과 각 교구 장학위원들이 후원하는 <교구장학헌금>이 있고, 기업을 하는 성도 가정에서 한 학기에 한 학생이상의 장학금을 헌금하는 <기업 후원 장학금>과 <개인명의 장학금>도 있다.
광림장학위원회는 22년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학업에도 열심인 신실한 믿음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이 담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림장학헌금>은 감사헌금 봉투의 괄호 안에 '장학'이라 기재한 후 헌금하면 전액 장학금으로 사용되며 주보 헌금 영수란에는 장학후원으로 표기된다.

문의 : 장학위원회 박상회 권사
(010-5351-2640)

백명순 기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자녀들입니다"

광림 샤이닝키즈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교육은 평생의 삶을 좌우한다. <광림 샤이닝키즈>는 5~7세 유치원 연령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믿음의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광림교회 병설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 세상 교육으로는 가르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 일반 유치원과 달리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품이 아이들에게 심겨져 아이들이 변화되고 나아가 부모와 가정이 변화되는 간증이 이어진다.

"한 학기 동안의 아이의 사진을 보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심을 느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반(6세) 허 윤 어머니의 고백이다. 베드로반(5세) 김재인 어머니는 "재인이가 샤이닝키즈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얼마 전부터 기도도 제법 잘하는 모습을 보며 주께서 재인이가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늘 체험하며 사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샤이닝키즈는 각 연령별로 반이 구분되어 있고 담임교사와 특별활동 교사가 내 아이처럼 사랑과 믿음으로 교육하고 있다. 수업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아이들은 다양하고 특별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음악, 체육, 미술, 스토리텔링, 영어, 놀이 수학, 성경 등 다양한 수업을 받는다. 또한 샤이닝키즈에 다니려면 사교육을 받지 않고 샤이닝키즈 교육에 집중하겠다는 결단이 먼저 되어야 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
김희전 원장은 "광림 샤이닝키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육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변화되는 곳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훈련을 받고 몸에 익히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보내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주인 된 어린이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광림 샤이닝키즈는 가을학기를 함께 할 신입원아들을 모집하고 있다.

소현수 기자

<광림 샤이닝키즈 신입 원아모집>
- 모집대상: 2015년 1월~2018년 2월 출생 어린이
- 모집시기: 2021년 7월 ~ 선착순
- 등원일정: 2021년 7월부터 등원가능
- 등록방법: 전화 상담 예약→원 방문 상담 →접수 안내
- 위치: 논현로 163길 33 사회봉사관 1층 (건물 왼쪽 샤이닝키즈 전용 출입구)
- 연락처: 02-2056-5735, 02-2015-1101

포토 뉴스

호렙산 기도회를 마치며
장로회는 7월 11일 호렙산 기도회를 인도한 김정석 담임목사에게 감사를 전했다.

상반기 목회세미나
7월 23일 금요일 사회봉사관에서 상반기 목회세미나가 열렸다.

청장년부 특강
청장년부는 7월 18일 관계사역과 치유 특강을 진행했다.

2021 하반기 속회공과
하반기 속회공과가 발간되어 교구 전도사와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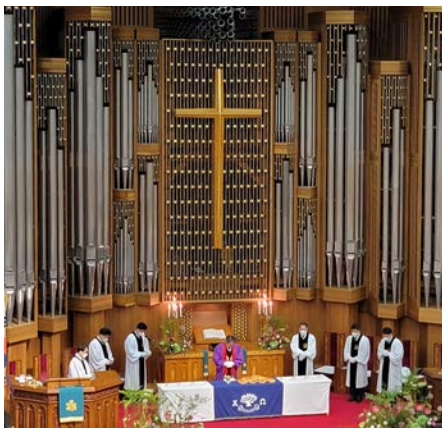
담임목사 동정

7/18	주일예배
7/22	감리사협의회
	나세남운영위원회 간담회
7/23	상반기 목회세미나
7/25	주일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제33회 **호렙산** 기도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대와 감사가 생수 같이 흐르는 호렙산 기도회

올해가 저에게는 두 번째 호렙산 기도회입니다. 작년에는 선교구 목사님의 초청으로 사양하기 죄송한 마음 반, 그리고 호렙산 기도회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마음 반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했으니 기도가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잘 모르는 찬송들, 기도하기 전에 주님을 세 번 부르는 것과 두 팔을 올리고 찬송하는 것은 어찌나 어색하던지 처음에는 괜히 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찬송이라도 따라 부르려고 노력하고, 제가 평소에 드리던 기도를 더 길게 늘여서 기도 시간을 맞추고... 이런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마쳐질 때 즈음, 제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라, 기도회 끝나면 새벽에 뭐 해야 하지?' 그래서 호렙산 기도회가 끝난 그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매일 참석하지는 못 하지만 일주일에 4~5일은 꾸준히, 지금까지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 나오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새벽 예배의 기쁨을, 주님의 성전에 더 자주 나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려주신 것이 작년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올해 호렙산 기도회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핑계와, 여전히 조금은 생소한 '기쁨의 찬송'을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을 들어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외치는 제 모습이 제법 자연스러워졌고, 기도 시간 오르간 반주가 끝나고 난 후에도 남아서 기도를 드리는 등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 뿐 아니라, 저의 마음 안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족한 인생이기에 살아가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등바등하기 보다 문제 해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그 중심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결과는 주님께서 관장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문제들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제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방식과 속도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체험으로 이제는 문제가 발생해도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주님께 나아가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제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친구나 동료들로부터 제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바뀐 것 같아"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은 제 자신이 바뀐 것 같다고 느끼며 이런 변화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임을 믿으며, 수시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두렵지 않도록 담대하게 해주시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 저의 기도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직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나 많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과연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더 주실까요? 그리고 내년 호렙산에서는 또 무엇을 주실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호렙산 기도회입니다.

유수종 성도(25교구)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저는 뒤늦게 주님을 영접하였고 신앙생활 하는 내내 둘째 딸 영선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영선이는 관절이 아플 정도의 비만과 이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한창 사회생활을 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고양이(반려묘)에만 집착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선이를 방 밖으로 나오도록 설득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딸의 취업준비가 길어져도, 남편이 음주사고를 냈을 때에도 이렇게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선이는 달랐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호렙산 기도회를 2년 동안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이 시작되기도 전에 저는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았고, 올해는 서틀 버스도 없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부터 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영선이의 고양이가 영문도 모른 채 죽어버렸습니다. 영선이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함께 슬퍼해주며 기도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영선이가 감사하게도 점차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반려견 자격증 시험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영선이에게 시험 볼 것을 권유 했습니다. 사실 딸이 어떤 선택을 할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적극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였고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결과는 감사하게도 합격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호렙산에 오를 수 없게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끼고 더욱 힘을 내 기도하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기도회 첫날부터 참석했습니다. 그날 담임목사님의 말씀은 저와 영선이를 위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벽' 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어둠이며, 새로운 하루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말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고, 영선이를 위한 기도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에만 갇혀 있던 영선이가 시험에 합격하고 드디어 취업도 했습니다. 수습기간을 거치면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쓰고 있는 현재 다른 사원보다 우수하여 일찍 정직원으로 채택된 상황입니다. 이 기쁨과 은혜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새벽 끝에 찾아온 새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셨고,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영선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박정순 집사(32교구)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8)

온전하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 찬양

이번 제33회 호렙산 기도회를 며칠 앞 둔 5월 22일,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는데 몸이 많이 무거워 올해 호렙산 기도회를 완주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온 몸이 아프고 정신이 맑지 않아 교회도 못 가고 교회학교 교사 봉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CTS방송으로 3부 예배를 드리던 중 제 마음속에서 자꾸 병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로 인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며, 병원을 가야 되면 어느 병원으로 갈지 알려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치킨을 먹고 있는데 금식이란 단어가 생각났지만 '맛있는 치킨을 앞에 두고 뭔 금식이요'하며 한 조각 더 먹으려는 순간 누군가 내 입을 막는 느낌이 들어서 못 먹었습니다. 운동 갔다 오는 길에 또 금식이란 단어가 몇 번 떠올라 '하나님 저는 진짜 금식 못해요. 왜 자꾸 힘도 없는데 금식 하라고 하실까요'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 가려면 금식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금식을 했습니다.

다음 날 간단하게 피검사와 소변검사만 할까 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가는 병원이라 좋은 의사선생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오른쪽 가슴 밑이 좀 뻐근해서 왔는데 그 곳만 좀 뻐근하고 많이 아프진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CT를 찍어봐야 정확히 알 것 같다며 금식을 해야 검사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저 오늘 금식하고 왔어요"라고 했더니 그럼 빨리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돌아와 결과를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사업장 문을 닫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CT상에 잘 확인 안돼서 늦었다며 빨리 큰 병원에 가 보셔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산병원에 접수를 하고 기다리던 연락이 와 갔더니 "CT를 봤는데 무슨 과로 연결을 해야 될지 몰라 늦었다"며 일단 대장항문외과로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 주셔서 5월 26일부터 시작해 6월 4일까지 수술도 잘 마쳤습니다.

11교구 모든 교우분들과 11-5에스더 선교회 식구들의 뜨거운 기도, 여선총연합회 임원들의 중보기도, 교회학교 고등부 선생님들과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뜨거운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주신 은혜로 희귀성 복부 미생물암이란 들어보지도 못한 암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은 아주 빠른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족한 저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두 번씩이나 암수술을 받았지만 살려주신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업장 운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핑계 대며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돌아보며 중보기도로 살아난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수술 후 6일 날 병원 로비에서 호렙산 기도회를 영상으로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담임목사님 말씀이 꿀송이 보다 더 달고,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수술 후에 저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주현 권사(11교구)

호렙산 기도회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

할렐루야!
이번 33회 호렙산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병 고침 받은 것처럼, 저도 지난 12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런 나날 속에서 있었습니다.
수면유도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다 보니 내성이 생겨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깰 수도 없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점점 자신감도 상실되었던 제게 왠지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시작 첫날부터 놀랍게도 저는 약을 먹지 않아도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맘으로 온전히 새벽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회에 38일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으로 감사하면서 영육이 더 강건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마치고 한강으로 새벽 운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함을 더 합니다. 주신 생명의 말씀을 새기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마지막 남은 이틀이 아쉽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40일을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선형 집사(12교구)

신앙 간증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

안녕하세요. 저는 광림교회 청년부 1교구 속장 김지현입니다.
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조금의 힘든 일들을 견디기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 입니다.

매년 그랬듯 '제33회 호렙산 기도회' 또한 저와는 상관이 없는 기도회 였으며, 청년부에서 '호렙산 기도회 참석 신청서' 를 작성할 때도 평일에는 가지 않고 토요일에만 참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기도회' 전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고, '이 상황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여 기도하며 맡겨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 '호렙산 기도회'에 올랐습니다.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호렙산에 오르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에게 고난이란 교회에서 생기는 고난이 아닌 세상 속에서 생기는 고난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저의 안식처가 되는 장소이자, 세상에서 받는 아픔을 위로받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교회에서 있었고, 저의 안식처 되며, 위로받았던 교회라는 존재가 광야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 마음속에 '호렙산 기도회'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게 하셨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 해서라도 제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끝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완전하게 해결되지도, 저의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예스'라는 응답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라고 고백하며 고난을 이겨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며,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해결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간 더 주님을 찾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지현 속장(청년부)

광림 헤리티지 & 비전홀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 - 14

올더스게이트 거리와 존 웨슬리의 회심

런던박물관 입구에 있는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조형물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했습니다. 찰스는 성령을 체험한 후 그의 형도 자신과 같은 체험을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여전히 영적인 만족감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앙적 회의와 영적인 갈급함에 있던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었습니다. 정오쯤 되어 또 성경을 읽고 오후에는 세인트폴 대성당에 가서 성가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세인트폴 대성당에서는 매일 저녁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후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따라가다가 모라비안 신도회의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 읽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찬송을 함께 부르며 영적인 만족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할 수 없었지만, 매년 5월 24일이 되면 세계 각지에 있는 웨슬리안들이 함께 모여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존 웨슬리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 후에,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따라 웨슬리 채플까지 순례합니다. 웨슬리의 회심 장소로 추정되는 곳은 세 곳이 있는데, 모두 런던박물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심 기념 동판은 런던박물관 입구에 있는데 성령의 바람을 상징하는 형상으로 제작되었으며, 1738년 5월 24일의 존 웨슬리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본당 성가대석 위쪽에 있는 네 개의 대형 창 중에 오른쪽 두 개입니다. 본당의 스테인드글라스는 떼제 공동체의 마르크스 수사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1998년 8월, 약 23개월의 작업기간을 통해 봉헌되었습니다. 푸른색은 영적인 어두움과 갈급함을 표현하며 붉은색 십자가를 중심으로 붉게 타오르는 형상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의 성령체험을 나타냅니다. 위로 갈수록 밝아지는 것은 천국을, 보라색상 계열의 사다리는 성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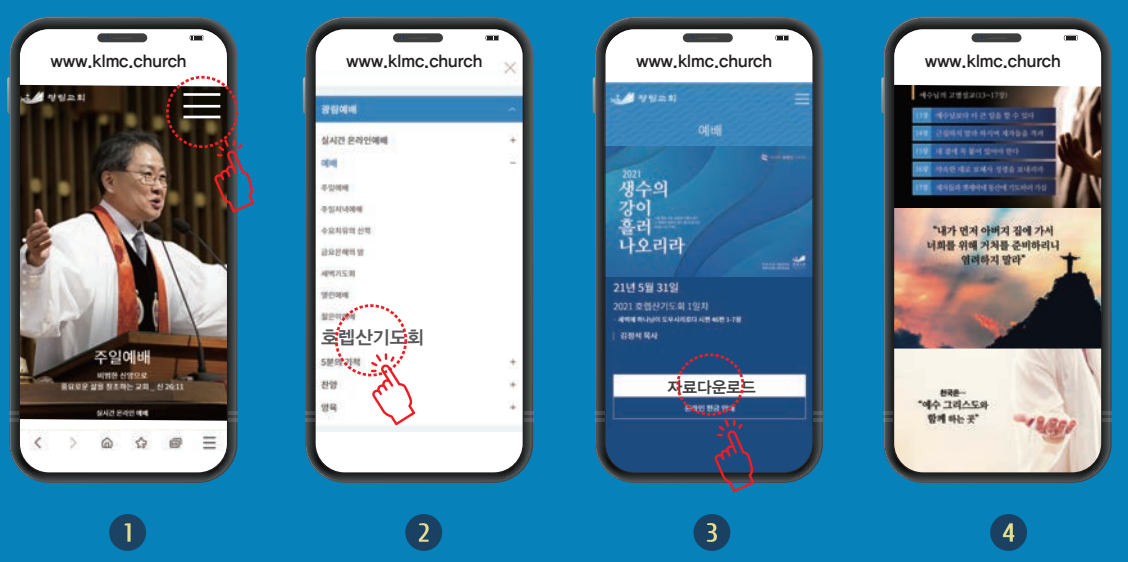
광림홈페이지 사용설명서 A To Z 2

호렙산 기도회 다시보기

호렙에서 내려와 일상으로 복귀한지 3주가 채 지나지 않았다. 서너 개씩 알람을 맞추고 눈을 비비며 새벽을 깨우던 시간들. 간절한 기도와 주여 삼창의 힘찬 외침, 마스크 사이로 쉼 없이 흐르던 눈물... 아주 오래전 일처럼 벌써 그 시간들이 그리워진다. 이 소중한 시간들이 그저 흘려보내지지 않도록 광림 홈페이지에 지난 호렙산 은혜의 자리를 준비했다
호렙산 기도회 기간 매일 새벽 담임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과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가 본당 스크린에 펼쳐졌다. 늦은 밤까지 불 밝힌 목회선교 지원실의 수고가 담긴 자료다. 이제 곧 휴가철이다. 호렙산 기도회 영상과 설교 자료 다시보기를 통해 쉼과 회복의 시간을 누려보자.

이선아 기자

호렙산 기도회 자료 다운로드 방법



코로나, 무더위, 두려움을 이겨낸 사랑의 실천, 헌혈

〈광림남교회〉

올해 초부터 '선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뉴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을 하지 못해 피가 더 부족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헌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 여겨, 작년에 이어 기쁨으로 헌혈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혈 날짜로 정한 7월 1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을 기대했는데, 교회로 못 오시니 걱정과 근심이 밀려왔습니다. 또한 요즘 폭염의 날씨로 더더욱 밖에 나오는 것을 매우 꺼려할 것이며, 게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혹여 감염으로 직장과 가정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두렵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코로나, 무더위, 두려움, 이 삼중고는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큰 부담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헌혈 동참 약속을 지켜주셨고, 예배 중 광고를 듣고 교회 오셔서 헌혈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신 12:23), 곧 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동물의 피라도 소중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를 우리를 위해 쏟으셨고,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코로나, 무더위, 두려움의 삼중고를 뚫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피가 쓰이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는 광림남교회 남선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윤진화 권사(광림남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광림서교회〉

화사했던 봄을 떠나보내고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지난 5월의 마지막 주일 광림서교회 아동부는 텃밭을 가꾸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토마토, 고추, 파 등을 심으며 자연과 환경에 관심을 두고 친환경적인 체험을 몸소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매주 아이들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 환경 속에서 뜨거운 태양과 단비를 맞고 자란 텃밭의 식물들은 모종이었을 때를 몰라볼 정도로 부쩍 자라 벌써 열매 맺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아동부 6학년 정은결 어린이는 "나 스스로 무언가를 심는다는 것에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여름이라 기후에 영향을 받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종을 심었습니다. 모종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기뻤고, 한 식물을 이렇게 길렀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부쩍부쩍 커가는 토마토들을 보면서, 맛있게 먹을 생각에 들뜨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식물들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동부 2학년 박수빈 어린이는 "심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아기였는데, 몰라볼 정도로 크게 자랐어요. 심은 주인을 닮아서 금세 자란다고 말해주신 전도사님 말씀처럼 저를 닮아서 금방 이렇게 자랐나 봐요!"라고 전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활동을 통해 광림서교회 어린이들이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며,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혜준 전도사 (광림서교회)

텃밭에서 수확의 기쁨 누려요

〈광림북교회〉

할렐루야. 제 33회 호렙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열과 성을 다하여 날마다 은혜의 말씀 선포하신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치된 순종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광림의 모든 권속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광림북교회에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일군 텃밭인데, 이제 제법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겨우내 얼어 있던 땅에 봄비가 아름답게 내리던 날, 북교회 집사님 두 분과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상추, 쑥갓, 겨자채, 방울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호박 등 작은 밭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씨를 뿌렸습니다.

수확한 상추와 여러 야채들의 첫 열매는 감독님과 담임목사님께 드려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고, 새가족들과 평소 잘 오지 못하던 부진한 성도들 심방 때에도 심방전도사님께서 활용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학교 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하며, 방울토마토, 고추, 가지 등은 어린이들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잘 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한 그루씩 맡겨주어 수시로 교회 들러 구경하고 또 열매도 따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밭을 가꾸며 함께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에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 지면 광림북교회에 영혼의 추수도 백 배로 임하리라 믿습니다.

정환명 권사 (광림북교회)

어머니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

- 목회현장 -

노정현 목사 (서울대병원)

우리가 잘 아는 격언중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라는 격언이 있다. 이 격언은 미국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격언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격언을 성경 말씀이라고 여긴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 말씀이 아니다. 그리스 시대의 속담이었는데, 이것을 미대륙 개척시대의 정신적인 유산처럼 만든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당연히 믿으니까, 삶은 내 의지대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한다. 그걸 잘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다. 앞의 격언의 뜻이 꼭 이러하다.

물론 이런 믿음도 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를 묻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단하여 말씀대로 살려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전환점, Turning Point 란 말은 예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활이나, 다른 가치관, 새로운 인식을 하며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을 말한다.

병원의 환우들을 만나면 이런 전환점을 맞이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을 만나게 된다. 요즘 매일 아침 7시만 되면 나에게 성경말씀과 묵상글을 문자로 보내는 환자가 계신다. 40대 남성 백혈병, 골수암 환자이신데, 어느날 간호사 선생님을 통하여 심방 부탁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잠시 만남을 가졌는데, 자신을 소개하기를 건축설계를 하며, 자신의 모친이 계신데, 모친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하였다고 자초지종을 얘기하였다. 그 모친은 연로하셔서 현재 요양원에 계신데, 코로나 상황에서 면회도 못가고, 자신도 치료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전화기에 기도해주시면 녹음한 것을 어머니에게 들려드리고 싶다고하여 기도를 드렸다.

코로나 시대의 눈물나는 생이별이 아닌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연실 울먹이며 아멘을 소리내는 환자의 모습을 보며, 연로한 노친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이 부끄럽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지 않는 회사 동료들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하여 나에게도 문자를 보내는 것이다. 이분을 보며, 주님을 제대로 뜨겁게 만나셨구나!란 생각을 하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환자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께 감사했다. 꼭 회복하시어 모친도 만나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김선도 감독의 아흔 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 '장천 울림'

10 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 담임)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담임목사는 <목사 김선도2> '목회의 지도를 그리다'에서 '김선도 목사의 통합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신뢰받는 리더로서 김선도 감독님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며 그 구체적인 리더십에 대해 논하였다. 박동찬 목사는 광림교회에서 청년시절 성도와 담임목사의 관계로 만나 전도사와 부목사로 재직했다. 지난 37년의 세월 동안 김선도 목사의 리더십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며 목회를 배운 박동찬 목사는 김선도 감독님의 교회성장에는 그의 통합적 리더십이 뒷받침되었기에 기적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아래는 박동찬 목사의 글 요약본이다.

리더 김선도의 인생

김선도 목사의 생애는 곧 그의 신앙과 사상의 뿌리가 되었다. 그의 신학과 리더십의 배경이 된 것은 첫째는 일제 강점기 때에 체득한 고난극복의 신앙이며, 둘째는 의학을 공부하던 시기에 형성된 실존주의적 신앙, 셋째는 전쟁 중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며, 넷째는 군목시절 철저한 헌신과 희생으로 배양된 충성의 신앙이다. 다섯째는 유학을 통한 폭넓은 신학 경험과 그를 바탕으로 한 목회철학의 수립이며, 여섯째는 광림교회 초창기 목회의 구령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 신앙의 자세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선도 목사는 국제적인 리더십을 갖추게 되었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김선도 목사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래서 그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다.

김선도 목사의 리더로서의 경력은 화려하다. 미국 웨슬리신학대학원 존 웨슬리상과 감리교신학대학교 동문상, 대한적십자 인도장 금장,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 등 다수의 큰 상을 수상하였고, 감리교 목사회장, 한국기독교교역자협의회 대표회장,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장, 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 그리고 한국월드비전 이사장, 국제월드비전 이사, 기독교TV 공동대표 등 국내외에서 무수히 많은 중책을 맡았다. 이는 그가 한국 사회를 넘어 국제무대에서도 좋은 리더였음을 입증해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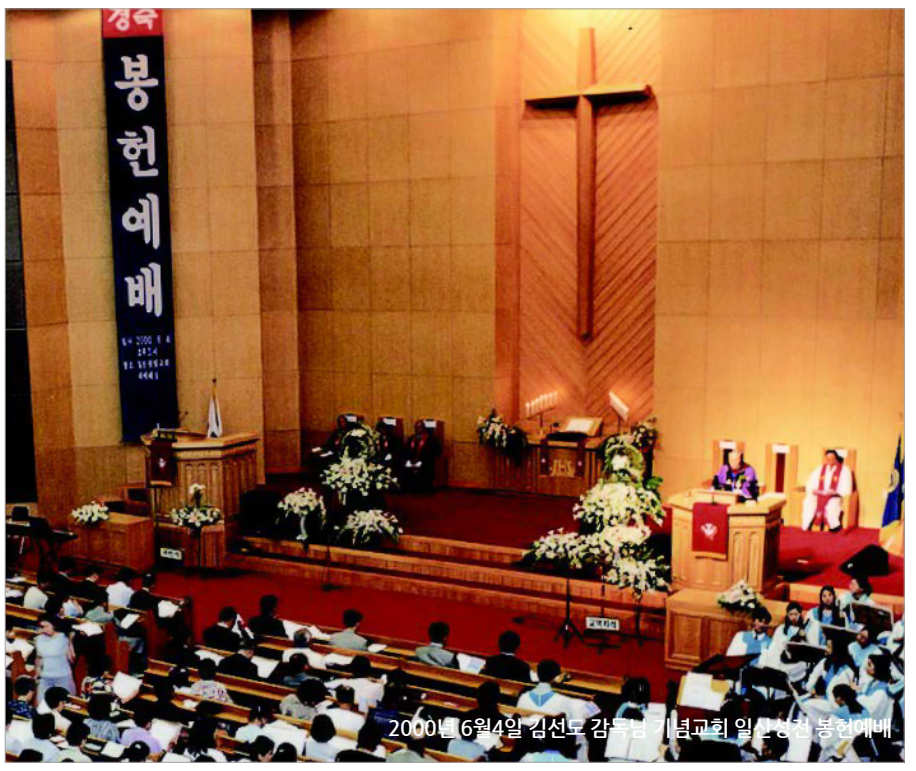
김선도 목사의 신앙과 신학

김선도 목사는 기본적으로 바울의 신학과 존 웨슬리의 신학방법론을 따르고 있다. 이런 사도바울의 신학과 존 웨슬리 신학의 흔적은 김선도 목사의 목회사역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사도바울의 가능성의 신학,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 4:13)는 말씀을 그의 목회의 축으로 사용하고 있고, 동시에 존 웨슬리의 성서와 전통, 이성과 경험이라는 네 가지 신학의 틀을 중요시한다. 김선도 목사의 신앙적 뿌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체험적 신앙에 근거한다. 6.25전쟁으로 인해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서게 되었으며 이런 체험적 신앙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다. 김선도 목사는 현실적 판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심방을 통해 점검했고 설교를 통해 해답을 줌으로써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

셋째는 그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다. 주위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고, 목회의 지경이 넓어짐에 따라 복지재단 설립과 해외선교를 통해 사랑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이상의 세 가지 신앙적 특징은 그에게 '치유 목회' 또는 '긍정의 목회'라는 독특한 목회스타일을 창조하는 뿌리가 되었다.



2000년 6월4일 김선도 감독님 기념교회 일산 성전 봉헌예배

▲2010년 어린이 주일 예배에서 설교하는 김선도 감독님

▲김선도 감독 기념교회-일산광림교회

목회 리더십에 필요한 자질

목회자가 지녀야 할 세 가지 덕목은 첫째,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과 충성'이다. 김선도 목사의 순종과 충성은 광림교회 목회사역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아무리 피곤해도 교인들 심방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새벽기도도 5시와 6시 두 번을 다 참석하였다. 해외선교를 나갈 때는 주일새벽에는 반드시 귀국을 했다. 주일예배때 설교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한 '거룩'이다. 김선도 목사는 아침 경건회 시간과 부교역자들을 교육해야 하는 시간마다 거룩에 대해 많은 강조를 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있는 내무사열을 통해 교회 내의 경건치 못한 것들, 안 좋은 낙서가 있는 책상조차도 다 찍어 불태워버렸다.

셋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실천이다. 김선도 목사 내외는 과거 어렵던 시절 명절 때가 되면 생활고로 힘든 교인들 명단을 작성해서 돼지고기라도 한 근 신문지에 싸서 달동네 산꼭대기 집까지 심방을 했다. 중한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 금식기도를 하며 진심 어린 사랑의 목회를 했다. 보편적 리더십의 자질은 능력과 도덕성이다.

여기에 더해 목회 리더십에 필요한 자질은 첫째, 하나님을 향한 소명감과 사명감, 둘째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열정, 셋째는 현실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 넷째는 대담한 용기, 다섯째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투명성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김선도 목사를 측근에서 모시면서 배워야 할 것들, 본받고 싶은 부분들을 수첩에 기록해왔다. 훌륭한 리더를 연구하며 나의 멘토로 삼고 그를 통해 삶과 목회를 배움으로써 많은 인생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멘토의 궤적을 따르며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유익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합적 리더십

김선도 목사의 삶의 철학과 목사로서의 장점은 그의 리더십에서 나타났고 교인들은 그의 리더십을 신뢰했다. 그로 인해 교회는 기적처럼 성장할 수 있었으며 그런 그의 리더십을 '통합적 리더십'이라고 부른다. 즉 장로교와 감리교, 도시와 농촌, 의학과 신학, 북한과 남한, 군인과 민간인, 한국과 미국, 풍요와 가난 등 이런 복합적인 인생 경험지수가 그의 목회 광역화의 기반이 되었다.

김선도 목사의 리더십을 요약하자면 1.긍정적 리더십, 2.창의적 리더십, 3.꿈과 비전의 리더십, 4.정직과 성결의 리더십, 5.섬김의 리더십, 6.영적 리더십, 7.경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선도 목사가 펼친 통합적 리더십은 끊임없는 도전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세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형성된 그의 리더십은 광림교회라는 목회현장에서 빛을 발하였고 열매를 맺었다.

정리: 변영혜 기자

장천의 아흔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
〈목사 김선도〉

빛의숲서점: 02-2056-5771
절찬 판매중

편집인 정존수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재현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신희경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